

한라시론



민 무 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제 제주 역사에 가장 큰 상흔으로 남겨진 4·3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4·3은 이제 제주의 역사를 넘어 빼어난 한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나아가 평화와 인권에 향한 세계적인 기록으로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역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희생자들 중 20%에 달하는 여성들과 유족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작업은 더뎠다. 2000년 전후 증언채록, 구술집 형태로 발간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제주4·3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주4·

제주4·3, 75년 전녀넌 여성들, 온전히 딛고 섰는가?

3생활사총서-4·3과 여성’ 시리즈와 제주도가 지원해 지난 5년간 제주여성회가 채록한 구술자료집 등이 있다. 이러한 구술채록은 ‘잊어 버린 줄 알았으나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억이 난다’는 어느 증언자의 말처럼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경험이 망각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중요한 작업들이다. 4·3 관련 세미나에서 간혹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분출됐지만, 여전히 생계노동으로 남은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일으켰던 여성들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계기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는 뜻깊은 공동 행사를 가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는 지난 2009년 창립된 이래 소수 1세대를 포함, 2,3세대인 딸,

며느리 등 179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행사는 4·3국가추념식 위령제례 음식을 마련하고 차 봉사를 하는 것이다. 유족부녀회로서는 공동포럼이라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집단적인 주체로서 발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하였다.

공동포럼의 주제는 ‘제주4·3 여성 유족 100인이 포안수다’였다. 열 개 팀으로 나누고 각 팀별로 4·3 이후 노동, 가족부양, 교육기회, 호적, 양자 문제, 마을 재건 등 살아온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도록 했다. 이후 나눈 이야기를 팀별로 발표하고, 후세대에 남기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80세 전후의 여성유족들이 얼마나 속내를 나눌 것이며, 나아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와 발표를 하겠는가

하는 점이였다. 그러나 우려가 무색하게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한 시간이나 연장됐고, 발표시간이 모자란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서너 장에서 열 장 가까이 미리 써온 분들도 있었다. 한 분 한 분이 역사의 조각을 들고 있었지만 그 조각에 대하여 공적 자리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자리는 매우 적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말함으로써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기록되지 못한 역사는 기억되지 못한다. 단순히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노동을 하고 생명을 돌보면서 공동체를 재건한 역사적 주체로서의 제주 여성의 삶이 더 많이 기록되고 더 널리 기억되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 견뎌낸 75년의 시간을 온전히 딛고 서게 될 것이다.

사설

도시팽창·주택난 해소 관건은 고도 완화

제주의 고도지구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됐다. 수려한 한라산과 오름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정된 지 오래돼 고도관리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건물 고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2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에서는 고도 완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지 대부분을 단일 용도지구인 고도지구로 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30여 년 전 지정된 고도지구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또 도시의 평면적 확산에 따른 도시 관리 비용 증가를 고려하고 15분 도시 등 고밀도·복합개발에 주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에도 우려를 표했다. 고도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규모 신규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주택수요 증가로 도시의 외연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거지 중심으로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따라서 도시팽창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 기준을 폐지한 것처럼 높이가 아닌 밀도 중심으로 고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도 완화는 제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택지 확보가 쉽지 않아 고도 완화를 통해 층수를 높이면 택지나 일정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도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못매 맞는 수익사업들



박 소 정
경제산업부 차장
cosorong@ihalla.com

돌이켜보면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해 온 수익 사업은 늘 못매를 맞아왔다. 2016년 뛰어난 시내 면세점 사업은 4년간 154억원의 적자라는 오명을 안고 끝났고, 2012년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아덴타워 부지는 업무용 시설로 활용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서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 공사가 99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건물을 건립했지만, 크루즈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5년여째 문을 열지 못하자

활용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면세점에 대한 투자비 회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사, 그 대안은 결국 면세점 사업실행자를 공모했던 제주도였다. 제주도가 공사로부터 입국장이 있는 1층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47억원에 매각해 6개월 전 인수했는데, 이로 인해 공사가 부담한 건설비의 절반이 회수된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도가 수익사업의 실패로 적자가 커진 공사에 제주도 대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명목으로 지원해 온 운영지원금을 2020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올려 지원해 온 모습과 겹쳐 보인다. 이번 면세점 관리권을 제주도가 인수한 것도 결국 공사의 손실을 형세로 막은 격이 아닌가. 수익이 나지 않는 면세점 등 판매시설이 조성된 2층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크루즈 운항 재개에도 여전히 감감해 보인다. 공사의 수익사업 중 지정면세점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만 나머지 수익사업은 여전히 못매를 맞고 있다.

뉴스-in

‘행정시장 맞교대 근무’ 비판에 잠정 보류

언론 공개 2시간 만에 철회

○…제주시가 29일 ‘행정시장 맞교대 근무’라며 ‘제주시·서귀포시 1일 시장 운영 계획’을 언론에 공개한 직후 기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2시간 만에 ‘잠정 보류’를 결정.

‘1일 시장’은 30일 오전 9시 30분 양 행정시장이 성판악에서 만나 강병삼 시장은 서귀포시청으로, 이종우 시장은 제주시청으로 향해 간부 공무원 티타임을 시작으로 시설 방문 등 현지에서 퇴근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짜였는데 이를 두고 ‘행정시장 놀이’, ‘보여주기식 이벤트’ 등 냉소적 반응.

제주시 관계자는 “4·3추념식을 앞두고 있고 도지사도 국외출장 중인 상황이라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언급.

전선희기자

아동친화도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4일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에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도내 초·중·고 아동 70명과 학부모, 아동분야 관계자 30명 등 100여 명이 토론에 참가할 계획이며, 오영훈 제주지사로 직접 토론회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분야별 아동권리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도민에게 바라는 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전체 토론에서는 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할 계획.

제주도는 이날 원탁토론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 부서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에 반영할 방침.

고대리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사용처 더 논의해야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호응이 괜찮은 편이다. 더 불어 모여진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제의 1호 사용처로 ‘기부숲’ 조성을 택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의미와 함께 도심 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부숲은 사업비 5억 원 규모로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구역 내 모충사 남측에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6월쯤 숲 조성 공사에 착수해 10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향일익병 및 향일투쟁가,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와 연계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나눔과 베품’의 기부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금 설치 목적에 부

합하고 도민과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호 사업으로 기부숲 조성이 그만큼 시급한 사안인가 하는 것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의견 수렴과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논의와 심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차별성 있는 사용처 발굴을 통해 기부금 사용 용도에 공감한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서는 사회혁신 플랫폼 사업이나 지역갈등 치유사업 발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 역시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부 고

양태혁(주)에스탑) 할머니 제주고씨 계련(향년 97세)께서 서기 2023년 3월 28일 20시 12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3년 3월 30일(목요일)
- ▶ 발인일시: 2023년 3월 31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 장 지: 어음리 선영

아 들(故)양두영 며느리 좌순양
딸 양은희 사 위 이응성
은옥 김신철
윤순 (故) 김동진
윤생 장영현
윤희 부금홍
윤실 (故) 이준문

손 자 양태혁

※ 연락처 : 좌순양 010-3694-6822
양은옥 010-3692-1496
양태혁 010-5561-840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성주(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

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

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30일

아 들 고 희 관 며느리 강인실

딸 고인수 사 위 최병학

인 옥 진당식

희 속

희 선 김형중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영호(요셉·前제주교대학장·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30일

부 인 한속자
아 들 김성주
딸 김성현 사 위 양승철
성희
성지 오성식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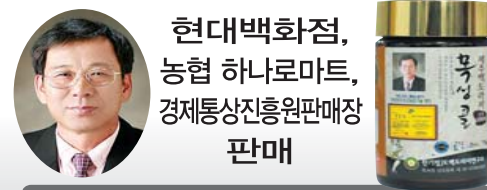
이번 저희 아버지 원주변공 성희(향년 85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30일

부 인 양순애
아 들 변창남 며느리 고영희
창부 임진경
창필 윤상희
창국 이명희
딸 변선옥 사 위 조권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3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 리 탄
우 리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차보수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